

이스트스프링 미국 بانک론 특별자산투자신탁(H)[대출채권]클래스 C-F

2019년 2월 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미국 بانک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리)[대출채권])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화대출채권 및 하이일드 채권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은행론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 원-달러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 680억 좌 (클래스C-F: 116억 좌)
- 모투자신탁(원화 기준) 805억 좌

펀드유형 특별자산투자신탁
- 모투자신탁 편입비: 80% 이상
-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클래스 C-F : 2014년 5월 26일

벤치마크 S&P/LSTA Leveraged Loan Index(USD) 90% + Call Loan(KRW) 10%

신탁업자 KEB하나은행

월 중 환헤지 비중 94.2%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6영업일	11영업일
17시 경과후	7영업일	12영업일

투자위험등급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	---	---	---	---	---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클래스 C-F 총 연 0.795%

(운용: 연 0.7%, 판매: 연 0.03%,

신탁: 연 0.04%, 사무관리: 연0.025%)

선취판매수수료

클래스 C-F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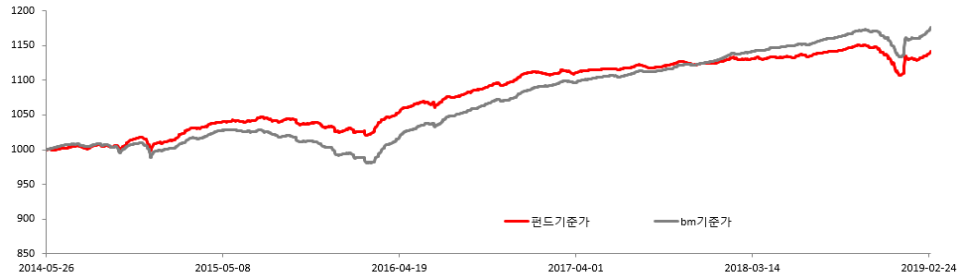
환매수수료

클래스 C-F 없음

펀드 운용 성과 (보수 차감 후 세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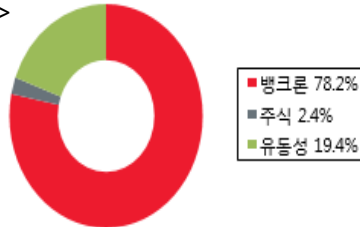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설정 이후
클래스 C-F	1.17%	0.47%	-0.03%	0.99%	11.26%	14.22%
벤치마크	1.44%	1.35%	1.21%	3.22%	19.72%	17.66%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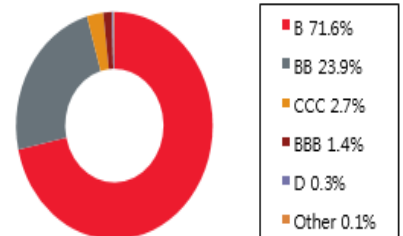


자산 구성 현황 (2019년 2월 말,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신용등급별 편입비중>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19년 1월 말, 모투자신탁 편입비중 기준)

종목명	비중
SPDR Bloomberg Barclays High Yield Bond ETF	1.30%
Multiplan Inc	0.90%
Caesars Entertainment Op	0.90%
Change Healthcare	0.80%
Numericable US LLC	0.80%

종목명	비중
Univar USA Inc.	0.80%
Golden Nugget Inc	0.80%
Prime Security Services Borrower LLC	0.80%
Misys Limited	0.80%
Select Medical Corp	0.80%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2월 뱅크론 시장은 상승하였습니다. 자금 유출 강도가 약화되고 대출채권담보부증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신규 대출채권 발행이 둔화되었습니다. S&P/LSTA 레버리지론 지수에서는 2월 한 달간 시가평가 부문과 이자 수익 부문에서 모두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CCC 등급 대출채권이 다른 등급에 비해 소폭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월 시장 지수의 부도율은 1.62%를 기록하였으나, 1999년 이후의 장기 평균 부도율인 2.95%를 밑돌았습니다. 펀드에서는 대출채권 선정효과가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현금 보유와 레저용품에서의 종목 선택이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작년 말부터 대출채권 뮤추얼펀드와 ETF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출되었으나, 연초 이후 유출강도가 완화되고 시장이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는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는 아직 없는 가운데, 2019년 전체적으로 이익 증가세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성장 전망치 대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에서는 철저한 리서치 리서치 프로세스를 통하여 뱅크론 자산 가운데 매력적인 자산을 발굴할 예정이며, 동시에 부실 자산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줄일 예정입니다.

※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중형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그룹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루덴셜 파이낸셜과 아무런 제휴관계가 없습니다.